

39 朝鮮の聚落 조선의 취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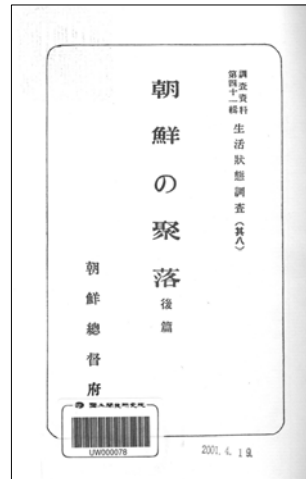
1933년(전편, 중편), 1935년(후편) / 善生永助(젠쇼 에이스케) / 총 2,532면 / H 08.10-01 선52한 1933

이 책은 조선총독부 촉탁으로 있던 善生永助(젠쇼에 이스케)의 저술이다. 1933년에 전편과 중편을 출판했고, 1935년에는 후편을 출판했는데 총 2,532면에 달한다.

이 책은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38집~41집까지를 합쳐 편찬한 것이다. 해방 후 동경대학의 총장을 지낸 矢内原忠雄(야나이바라 다다오) 교수의 말에 따르면, 일본의 우리나라 생활상태조사란 것은 영국이 인도를 통치할 때 실시한 조사를 모방한 것이라고 한다. 이 책은 젠쇼에이스케가 저술한 『조선의 인구현상』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 책을 같이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.

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시가화(都市化)가 늦은 이유를 20여 가지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몇 가지를 추려 보면 ① 도시의 배후지가 될 촌락경제의 빈약, ② 봉건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저도시(城下町) 발달이 없었던 것, ③ 화폐 발달의 미숙으로 인한 상업의 부진 등이다.

후편은 이 조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인데 성씨(姓氏)의 변천과 동족(同族)부락 및 그 연혁을 분석하고 있다. 특히 여기서는 우리나라 성씨 중 다른 민족으로부터 귀화해 온 성씨가 135개 성씨나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. 시대별로는 하(夏)나라 때 6개 성씨인데 여기에는 문화유(文化柳)씨가 포함되어 있다. 은(殷)나라 때는 2개 성씨인데 여



기에는 평양조(平壤趙)씨가 포함되어 있다. 한(漢)나라 때는 8개 성씨가 귀화했는데 여기에는 청주한(淸州韓)씨와 해주오(海州吳)씨가 포함되어 있다.

한편 당나라 때는 26개 성씨가 귀화해 왔는데 여기에는 연안이(延安李)씨와 교하노(交河盧)씨가 포함되어 있다. 발해(渤海) 때는 한 성씨이고, 삼한(三韓)시대 두 성씨, 오대(五代) 때는 5개 성씨였고, 송(宋)나라 때는 8개 성씨, 원(元)나라 때는 19개 성씨, 명(明)나라 때는 두 개 성씨였고, 연대미상이 41개 성씨, 일본인 귀화가 13개 성씨였다.

우리나라 제1의 양반가문으로 꼽히는 연안이(延安李)씨도 당나라 때 귀화해 온 사람이었고 일본인 귀화인 가운데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 장군 沙也可(사야가)가 병 3,000명을 이끌고 당시 경상병사 박진에게 귀부(歸附)하여 후일 선조로부터 김해김(金海金)씨 성을 하사받고 김충선(金忠善)이라 하였다.

한편 족보의 최초는 조선조 명종(明宗) 17년의 문화유씨였다는 기록도 있다. 이밖에 이 책에서는 우리 성씨별 관향수(貫鄉數)도 기록하고 있다.